산업통상부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3. 11(수)

알뜰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 엄정히 조치하고 재발을 막겠습니다.

어제 경유값 상승 전국 1위가 알뜰주유소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주유소는 전쟁 발발 닷새 만에 리터당 경유 가격을 850원이나 인상했고, 단속 분위기가 감지되자 다음 날 600원 넘게 다시 내렸다고 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해당 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395개, 도로공사 209개, NH 714개 등 총 1,31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2월 28일 이후 전국 모든 알뜰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일일 가격 변동을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석유공사, 도로공사, NH 등 알뜰주유소 관리 기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알뜰주유소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알뜰주유소에 가면 품질 좋은 석유를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알뜰주유소는 존재 이유도 가치도 없습니다. 정부는 ‘알뜰’이라는 간판을 믿고 이용해 오신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부당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담당부서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열규(044-203-5220)
		담당자	사무관	이영희(044-203-52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